

문학적 관점에서 본 구술조사인 정리의 방향 - '이야기'의 성격과 위상을 중심으로

신 동 혼 (건국대 국문과 교수)

□ 역사적 경험에 대한 구술조사인 '이야기'

대동아전쟁과 6.25 한국전쟁, 4.3사건, 광주민주화 운동 등 우리 근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사 연구는 그간 한국사 영역에서 정치사회적인 맥락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되어 왔다. 이때 주 자료로 활용된 것은 공공기관의 문서나 외교 관련 사료, 각종 사회통계 등이었다. 이들 자료는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객관적인 물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공적 위치와 거리가 먼 일반 민중의 역사적 경험과 의식을 실체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데는 명백한 한계를 지닌 것이었다.

근래에 민간의 증언을 축으로 한 구술사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어 그간의 편향성을 교정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구술자료를 통한 역사 연구는 현장에 기초한 아래로부터의 역사 이해의 길을 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문헌자료와 달리 구술자료는 경험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영원히 유실되고 마는 것이어서, 좋은 제보자를 찾아 자료를 폭넓게 확보하는 것이 특히 시급한 과제가 되어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의 구술사 조사 정리 작업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상황과 관련한 '정보'를 확보하여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특정 사건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궁극한 사항을 탐문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것이 상례다. 그를 통해 문헌 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정보를 확보하여 역사적 상황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 주요 작업 내용을 이루게 된다. 이런 접근은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하며, 다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역사는 '사실'이나 '정보'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역사는 온몸으로 경험하는 것이며, 그 경험은 특히 강력하고 인상적이며 유의미한 경험은 '이야기'의 형태로 남아서 생생하게 기억되고 재현된다. 역사적 경험에 얽힌 생생한 체험담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현장의 진실을 구체적이고도 총체적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특정 제보자가 체험담 형태로 전하는 이야기는 충분히 객관적일 수 없으며, 기억상의 착오나 또는 기타 의도에 의해 사실이 왜곡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하지만 그러한 변형 내지 왜곡의 요소에서 또다른 역사적 진실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학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시각이다. 사실을 변형하는 과정 자체에 사람들의 역사체험의 성격과 역사를 대하는 태도가 깃들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에 해당하는 신뢰할 만한 진술과 구술자의 의식적·무의식적 변형에 해당하는 진술을 잘 가려내고 종합하는 작업을 통해 역사의 진실에 깊이 접근해 들어갈 수 있다는 관점이다. 이와 같은 문학적 접근을 통해 정보 확인 중심의 사료 확보 작업에 대한 근원적인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왜 '이야기'인가를 부연해 본다. 먼저 이야기란 역사적 경험을 사실과 의식을 포괄하여 총체적으로 반영한다. 그를 통해 생생하고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 다음, 서사적 맥락을 지닌 담화로서의 '이야기'는 역사적 상황을 구조화된 형태로 반영한다. 그 구조 속에 역사적 경험의 핵심요소들이 함축된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로 구조화된 담화는 자료로서의 객관성을 발휘한다. 역사적 관점의 조사결과가 대개 해당 조사자에 한하여 유용성을 지니는 데 비하여 이야기 형태로 정리된 자료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와 이용자들까지도 쉽게 접근하여 폭넓게 활용할 만한 자료가 된다. 그런가 하면, 이야기 형태의 담화는 접근하기가 수월하고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그것은 흥미와 긴장 속에 전달자와 수용자 간의 깊고도 밀도 높은 소통을 가능케 한다. 끝으로, 이야기 형태의 역사체험담은 소설이나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 소재로 활용되기에 적합한 자질을 지닌다. 서사적 맥락과 함께 역사 상황에 얽

힌 구체적 형상을 오롯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분단 트라우마 관련 구술조사에서는 역사적 사실에 얽힌 각종 정보를 탐문하는 역사적 관점의 조사 정리 외에 역사적 경험과 역사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는 양질의 이야기 자료들을 널리 조사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큰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분단 트라우마’란 단순한 정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면적 상처와 관련되는 화두인 만큼, 역사와 삶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심층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 작업이 그만큼 더 필요하고 유효한 작업이 됨을 강조하고 싶다.

□ 어떤 이야기를 찾아 들을 것인가

역사적 관점에서의 조사이건 문학적 관점의 조사이건, 또는 양자를 통합한 조사이건 좋은 제보자를 찾아내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구술조사의 성패를 가르는 요건이 된다. 이야기를 축으로 한 구술조사에 있어 어떤 자료가 좋은 것인지를 기준을 세 가지 층위에서 설정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체험의 질	체험의 역사적 전형성과 절실성. 체험에 깃든 삶의 깊이와 진정성.
(2) 기억과 재현	경험내용 및 관련 상황의 정확한 기억을 통한 폭넓고 생생한 재현.
(3) 표현 능력	사연의 서사적 구조화. 구연의 흡인력과 형상적 표현의 재미.

(1)의 ‘체험의 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무엇을 경험했는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역사현장의 한복판에서 역사의 우여곡절과 상처를 남달리 강렬하게 경험했다면 그만큼 유력한 이야기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어떻게 경험했는가’ 하는 요소이다. 유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상황에 휘둘려온 경우와 상황에 적극적으로 부딪쳐 그것을 헤쳐나오면서 그 역사가 갖는 의미요소를 온몸으로 실감한 경우 경험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체험에 깃든 삶의 깊이와 진정성’이라 함은 이를 나타낸 것이다.

(2)의 기억 및 재현 능력은 좋은 이야기를 가능케 하는 기본 조건에 해당하는데, 역사경험담의 경우 설화의 경우와는 그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 설화에 있어 기억의 대상이 ‘스토리’이고 그것의 형상적 재현이 상상력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데 비하여 역사경험담에서는 실제 경험이 기억의 대상이 되며 상황의 재현 또한 본질적으로 상상이 아닌 사실에 입각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억해내는가 하는 것이 담화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 설화에 비해 ‘재현’보다 ‘기억’의 중요성이 더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3)의 표현 능력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야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재미있고 설득력 있는 표현을 통해 실감있고 감동적인 간접체험을 제공할 경우 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경험을 전함에 있어 단편적 정보나 장면들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미 있는 요소들을 서사적으로 꿰어서 구조화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된다. 그런 서사적 구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객관적인 역사 상황 및 주관적인 역사인식을 포함한 역사적 경험의 의미 요소들이 온전히 살아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한 구술조사에서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두루 갖춘 양질의 이야기를 제공할 만한 좋은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 명의 좋은 제보자가 열 명의 평범한 제보자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은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성실한 탐문과 정성이 필요하며, 그리고 이야기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명실상부한 최선의 자료들을 확보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좋은 이야기를 확보하는 데만 치중하다가 제보자의 이야기에 이끌려 들어가 그 구술의 사실성 내지 진실성 여부에 대해 판단이 불가한 상황이 되면 곤란하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구술자에 의한 주관적 변형이나 왜곡이 의심되는 부분은 조사자가 따로 세심히 확인해 두고서 반복 확인조사 내지 주변인들에 대한 교차조사 등을 통해 자료 내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근거를 마련해 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력한 제보자의 구술자료에 대해서는 구술 자체

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완할 보조자료를 폭넓게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구술 자료,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구술자료는 구술상황 및 구술대상에 얽힌 제반 정보를 정확하고도 폭넓게 확인하여 정리해야만 그 자료적 가치가 온전히 살아날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얽힌 ‘이야기’를 주요 대상으로 삼는 구술조사의 경우 이야기 원문 외에도 다음과 같은 각종 정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확보하여 정리해야 할 것이다.

1. 제보자에 대한 정보

▷ 기본 정보

- 성명과 출생연도, 고향, 성장한 곳.
- 주소, 학력, 직업, 종교, 가족관계
- 생활환경과 생활수준
- 취미와 특기, 소일거리

▷ 생애 관련 정보

- 출생 및 성장에 얽힌 내력
-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과 그 영향
- 자신의 삶의 이력에 대한 자신의 평가
- 화자의 생활사와 관련되는 각종 사진 및 유물자료

▷ 이야기 화자로서의 특징

- 성격상의 특성(이지적/감성적, 낙관적/비관적 등)
- 역사와 사회, 세태에 대한 생각, 세계관.
- 기억력과 구연능력.
- 말씨와 발음 등의 언어적 특징, 표정과 몸짓 등의 비언어적 특징

2. 구술 대상 상황에 대한 정보

▷ 제보자가 전하는 정보

- 구술 대상 경험의 기본 성격
- 경험 당시 제보자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
- 경험과 관련된 각종 주변 상황에 얽힌 제반 정보
(조사자가 사전조사와 질문지를 통해 필요한 정보 탐문)
- 구술 대상 경험에 대한 제보자 자신의 평가

▷ 조사자가 조사하여 정리하는 정보

- 구술 대상 경험의 성격 및 개요.
- 구술 대상 경험과 관련된 제반의 기존 정보
- 구술 대상 경험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 제보자 경험 내용의 객관성 및 신빙성에 대한 판단
- 제보자 경험 내용의 의의에 대한 평가

3. 이야기 텍스트 및 관련 정보

▷ 기본 정보

- 자료 일련번호와 제목

- 조사일시와 장소, 조사자, 청중구성, 총 구연시간

▷ 이야기 구연 상황

- 이야기 생성 과정(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 해당 이야기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특성
- 청중의 태도와 호응도, 화자와 청중의 교감 정도
- 구연의 진행에 따른 분위기의 변화 양상

▷ 이야기 개요

- 이야기 개요 : 해당 이야기의 내용과 특성을 간단히 소개

▷ 이야기 원문

- 이야기 원문
 - 화자가 구연한 내용을 그대로 녹취하여 수록
 - 구연과정에서 조사자나 청중이 화자와 주고받은 말도 함께 정리 수록
- 이야기 구연 모습을 담은 사진
- 이야기 관련 이미지 : 배경현장 사진과 삽화. 이야기 관련 유물 사진

이야기 원문을 정리함에 있어 녹음 자료를 정확하게 전사하여 정리함으로써 현장감과 전달력을 높이도록 한다. 제보자가 일정한 맥락을 가지고 구술을 이어간 대목은 이야기체로 정리하며, 특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자와 제보자가 이야기를 주고받는 대목은 대담 형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야기 원문 앞에는 구술자료에 대한 기본 정보와 조사상황, 이야기개요 등을 제시하며, 이야기 원문 뒤쪽에는 구술내용에 대한 논평과 보충설명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구술자료 정리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사진은 생략함).

20081031박○○ 2(서울)

6.25 한국전쟁 시절 피난길의 고난과 설움

조 사 일 : 2008년 10월 31일

조사시간 : 1시 00분 ~ 3시 40분(2시간 38분 16초)

구 연 자 : 박○○, 여82세(1927년생)

조 사 자 : 김정경, 김예선, 김효실

조사장소 : 서울시 종로구 한정식당(<충청도집>)

[조사과정 및 구연상황]

박○○은 전에 한번 조사를 했던 제보자인데, 할 얘기가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조사에 나섰다. 전번의 조사를 통해 조사자들을 신뢰하게 되었는지 연락을 하고서 찾아가자 무척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근처 식당에 자리를 잡고서 식사를 한 뒤에 편안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지난번 조사에서는 살아온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구연한 데 비해, 이번 조사에서는 주로 6.25 체험담을 생생히 구연했는데, 특히 피난시절에 겪은 수많은 고난과 설움을 때로는 한숨과 눈물을 섞어가면서 구구절절히 들려주었다. 이야기 조사를 일단락한 뒤에는 복지회관 식당에 들러 벽에 걸려 있는, 제보자가 그렸다는 그림을 함께 감상하기도 했다.

[이야기 개요]

피난시절 대구에서 자매실 방이라는 데에 묵었다. 함께 묵었던 피난민들 모두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며 힘든 시절을 넘겼다. 제보자는 오빠가 군인이라 남들보다 배급량이 많았고 그 덕에 조금은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남편을 찾아다닐 때는 너무 힘들어 자식들과 함께 죽어버리거나 애들을 떼어놓을 생각도 해보았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 못했다. 남편이 데려온 자식도, 제보자가 낳은 자식도 아직은 잘 살지 못한다고 한다. 특히 남편이 처음 데리고 왔던 큰 딸아이가 자신이 돈을 벌러 다닐 때 집안 살림하느라 고생했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한다.

【이야기 원문】

▷ 자매실(잠실) 피난살이에 대한 대담

조사자: 그때 피난 가셨을 때 자매실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할머니.

제보자: 네, 자매실에.

조사자: 그 자매실이라는 게 어떤 거?

제보자: 누에, 누에 기르는 데. 누엘 길르는 데.

조사자: 누에 기르는 데를 자매실이라고 했어요?

제보자: 음.

조사자: 그럼 거기는 누구만,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데예요?

제보자: 아니 육이오가 났으니까, 저 났으니까 그런 데를 전부 지하실로 그 도구를 다 지하실에다 놓고는 안 왔지 않아. 중대했으니까. 그르니까 그냥 이른 방이 큰 교실 같은 방이 짹 짹 마루방이 비좁아요. 그 누에 기르든 데니까. 그글 1호실부터 7호실까지 길게 있는 데 곱, 칠성동에 그런 자매실이 큰 게 있었어요. 그래 거기 그거 내줬어 주인이. 그래 거기서 쫓 잡지,

조사자: 아무나 잘 수 있었어요? 경찰가족이 잘 수 있었다거나.

제보자: 아니 고 1호실만 경찰가족이구 그담에는 다 아무나. 아무나 일찍오기만 하무는, 은기만 하문 되지. 그릉다고 돈 주는 것도 아니구 그냥.

조사자: 그렇게 경찰가족은 따로 사나 봐요?

제보자: 따로 살았어요. 헌병가족이 최고조, 대혁명시절이 돼서. 그르기뻐에 나두 아이 두 아이 데리구서는 가갓구서는 그냥 내리가서. 거기 무슨 경찰학교 주임 되는 사람이 자기 가족 없구 홀애, 총객이니까 나를 태외졌거든 가족이라구 그래갓구.

▷ 햇불피고 놀다가 걸렸는데 경찰 가족이라서 모면하다

그래갓구선 내려가서 있는데 거기 함께 가, 가족으 내리가 있는데 으뜩해 봤대는데. 어니 날 비 오는 날 거그, 그 사람들이 앉아서 거그서 놀다가 경찰, 그 우리덜 데리구 한 사람은 경, 저 인제 놀구, 우리들만 인솔해갓구 땡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거 경찰학교 갓 졸업 마천 남자 됐는데. 그날들 친구들끼리 모여서 노, 햇불을 쬐어. 근데 헌병이 일을 나왔다가 경찰덜이 허니까 잡아갓어.

그르니까 내가 봐달라구 헌병들게다가 그르니까. 인제 젊은 여자가 나이 스물 넷인가 셋인가 밖에 안땡데 그르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박철휘현이가 우리오빠예요”

그랬드니

“헌병, 11사단 박철휘현이가 우리오빠예요”

그르니까

“진짜 진짜 오빠냐?”구.

친오빠라구 그랬드니 바루 내 위에 오빠라구 그랬드니 자기네들 상사니까 뇌주드라구.

그래니까 거기서

“야 헌병이 이만큼 씨구냐”

허구는 식구덜이. 그대 뭐 내가 조금만 뭐 허문 이것 줄라 저것 줄라, 가족들이 그냥 이제는 땡다구 헌병 가족이 하나 있어서 피난가기 좋게 생겼다구. 아니 내가 와서 그냥 헌병 가족이라니까 다 그냥 태외주잖아.

그대 대구시내 오열분자들이 들와서 폭탄을 터뜨려서 그냥 팡팡 불이 났그등. 불이 나니까 피난을 가야니까 차들을 다 타야되는데 차를 태외취 안태외취. 근데 군인 가족이라구 그르니까 몬조리 우리 자매실 식구가 다 탕지 그냥.

▷ 청도 피난처에서 밤을 지낼 때 동행이 홀로 떠나 서글픔을 느끼다

그래갓구 저기 청도까지 내려가가지구는 갔어. 차가 청도까지밖에 안가니까는 가갓구는. 청도에 가서 나허구 정열이 엄마라구 있었어. 고, 저기 안양 경찰관이라구. 안양서에 있는 사람이라구. 그래 그 여자허구 들어서 학교 지키는 사람한테 가서 땡을 하나 열어달라구 그랬어. 그이가 문 열어준 데 바려놓구 간다 그러는 걸 아이들 데리구서 나는 단, 바깥에서 잘 수가 없어서 그르니까, 전부 거기서 그냥 학교 빈자리 그르데다 그냥들 돛자리 깔구 밤에 자는데 우리 둘은 그냥 몰르구 인제 열어주니까 들으가서 강당, 그 저 선생님 올라스는 데 있지. 고기다가 인자 두 식구 우리가 들어 갔거등.

근데 다 새벽에 와서 식구들은 다 수용소로 가는데 우리 둘은 못찾았으니까는, 교실 안에 들어가 잘 줄은 몰랐으니까 둘만 남았드라구. 아침에 깨보니 둘만 남았어. 그래 인제 우리들이 자매실 방에서 올 때 아무개 엄마는 어덜루 갑니다, 어덜루 갑니다 그릉게 그냥 그 판자쪽에 써놓구 왔드니 그집이 신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구 데리구서 난 어덜루 간다구 그 즈이 여편네만 데리구 가드라구. 나만 냉겨놓구.

고때, 그대 제일 울구 서글뻐던 게 그때야. 그 여자 떨어질 때. 갈 곳 없잖아. 혼자 다 떼 있으. 나걸으른 즈이 신랑이 암만 데리구가도 데리구 같이 갈 거야. 같은 경찰관 가족이구. 그래 떠어놓구 간 거, 고걸 생전 죽어두 잊어지질 않아.

▷ 오빠를 찾아 다니다가 방을 얻어서 들다

그대 어뜩해 험 수가 없어서 그 시내루다 나오니까, 학교에서 나와서 시내루 나오니까는. 헌병이 하나, 우리 오빠 헌병이기 땡에 봤어. 헌병이 길 어뜩허니 허구 섰드라구. 그래 가서 얘기를 허니까는

“박철휘현이 어딴데요?”

그르니까 요 병산에 있다구. 바루 한 점만 올라가든 있다구 그러드리구.

그르는데 왜 그러시냐구 그래서

“우리오빠가 되서 그래요” 그래니까. 그러냐구

“근데 여기는 어떡해 내리왔느냐?”구

그래

“피난을 나왔는데 가고 오고 할 디가 없어서 그런다”구 허서.

“오빠 찾아가든 뭐지 별 수 있나요?”

그래니까.

“그래두 찾아봤으면 좋겠다”구.

“우선 잘 방을 마련해알겨 아녜요 그저. 그래서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요”

그랬드니 그기 바로 앞애가 여관이드라구. 그레 낮엔 여관두 못했거든. 피난민들이나 뭐 막 들어오니까. 그레 그 집더러 방 하나 주라니까
행길 앞 방을 주드라구.

▷ 피난처에서 만난 남편이 귀찮은 듯 야속한 말을 던지다

그를 자기가 올라가든 얘기를 할 테니까 요기때, 이 여관에 가 있다구 얘기를 할 테니까 요기서 기다리라고 형제, 쫄병이니까 인제 뭐이
라두 하나라두 그른 심부름 해주든 좀 또 그리하잖아 그래서. 앉구 있으니까 이릉게 처량하게 바깥 내다보구 앉구 있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어쁜 트럭을 타구서 나오드니 고기서 딱 스프드니만 훌쩍 내려갓구 가는 게. 인자 그레 막- 쫓아가서 이름을 부르니깐 보드니

“아 저거 죽지않구 여기까지 왔네”

그러드리구. 우리 할아버지 그레, 날더러 저거 죽지 않구 여기까지 왔다.

▷ 피난 당시 가족 상황에 대한 대담

조사자 : 그럼 그때 할머니는 누구랑 있었어요? 할머니랑?

제보자 : 얘기 들.

조사자 : 얘기 들?

제보자 : 응, 딸래미허구 아들래미허구. 아들래미는 백일, 저 둘 안된 거, 딸래미는 다섯 살짜리.

조사자 : 어, 그 다섯살짜리 딸래미가 그 일본..

제보자 : 예, 예.

조사자 : 그 딸래미예요? 다섯 살짜리가?

제보자 : 응, 응.

조사자 : 그럼 하나는 할머니가 업구.

제보자 : 그르는데 이남매 왔으니까는 내가 난 걸루 알지. 호적을 허면서 여기 와서 가호적을 해서 차례로 올라왔으니까 다 내 새끼야. 몰라,
아무도.

조사자 : 그럼 여기 내려오셔서 다시 가호적을 하신 거예요?

제보자 : 그럼요. 가호적을 새루 해야 되요.

조사자 : 그럼 지금 아무도 그 딸을..

제보자 : 아이 녀들이 자꾸만 의심스러워갓구선 의붓엄만가부다, 의붓엄만가부다 그래서 아이, 둘 아이가 따르질 않아요. 의붓엄마라, 남들이
괜히 그래갓구. 그르니까 그 추운 데 몰두 길어오라 그러지, 어떡해 제 새끼르든 그릉게 몰 길어오라구 시켜떡갓나구. 그 남으 머
리루 상상을 해서 그 아이들이 자긴 내가 엄마가 아닌가부다 이상해갓구는 엄마 허구 달려들지를 았아. 자꾸 동네사람들이 그르니
까. 못듣는데 느이 엄마 아닌가부다 아닌가부다 그르니까. 그릉게 부러먹지 어떡해 느이들 눈치보갓나. 그레갓군 애들이 따르질 았
았어요. 나만 들오든 그냥 요로구 구석으루 가서 았어. 그 즈이 누나가 일어나든 그 남자애는 같이 일어나구, 즈이 누나 았으든 같
이 았구. 즈이 누나 나가든 따라 나가구 그랬어. 그르지 못하게 해두 그레 했어. 발발발발 떨기만 허드. 어떡해 할 수 없어요, 잘
헐러 해두. 어찌 그릉게 허게끔 됐어.

조사자 : 그래두 할머니가 피난 나오셨을 때 개들 안 데리구 버리구 왔을 수두 있는데 특별히 같이 다니신 거잖아요.

제보자 : 그럼요. 우리 친정에서 버리라고, 그레 갓다 고아원에 갓다주든지 버려버리지 왜 고생하냐구 그러는데두. 아무두 았든 애들인데 그
거 어떡해. 그르니까 그 일단 내 호적에 올라 내 새끼데. 그르니까 데리구 다녔는데.

▷ 발 아프다 투정하는 딸자식을 약 먹고 죽자고 위협하여 달래다

참 잊어지지 았든 게 있어. 인제 대구시내에서 피난을 나가라고 그러니까 모두들 그냥 밤중인데 아래루 가아잖아. 부산쪽으루들 그냥 막 몰
려나가는데 나는 여득 혈 수가 없어서

“어유 이거 누구 쌀가져요”

쌀가지라구. 갓구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레갓구 인제 그 여자애는 인제 고무줄을 여기다가 꿰 매야 안 벗어지갓으니까 양쪽에다 꿰 매구. 애는 인제 업구 그럭허구는 그거 둘만

데리구 갈래두 힘들잖아. 그러니까 쌀을 못갓구 누구 가지라구 그래니까 거기서 그래두 식구 많은 집이서 쌀 거주 가드라구.

그루구 나는 데리구서 남들 쫓아서 갔는데. 그계 경산이래, 거그가 바루. 아침이 흰히 밝아갓구선 낮이 되니까 경산. 또 하루정일 또 갔지. 경산두 못 벗어났는데 막 기마대들이 그냥 말 타구 땡기면서 막 빨리 들어가라구 다시 대구시내루 들어가라구, 그기 저 인민군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구서나 오열분자들이 폭탄을 터뜨려서 그러니까 빨리 가라구, 도루 들어가라구 그러니까 순식간에 읍어져요, 사람이 그렇게 벌판에 많은 계.

그래갓군 해는 뉘엿뉘엿지 기마대 병사들이 저거 말 타구 뛰어 돌아땡기는 거 그거백인 읍어. 그런데두 힘들어서 어떡해 갈 수는 없지. 그래서 내가 앉아갓구 얘기는 안구 인제. 그랬드니 인제 우리 그 팔래미다리 옆에 앉아서

“엄마 나 발이 부었어”

그래갓구 보니까 발잔등이 탕탕 부었어. 그래서

“어떡허냐, 어이구 그래갓구, 하루종이 이 어린 계 걸어왔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뵈네”

인제 그러면서나 앉아서 그렇게 다리를 맨지구 있는데. 요렇게 바리다 보니까 풀숲에 병이 떨어졌드라구. 그래서 내가 얼릉 이렇게 병을 줏었다구. 줏어갓구 우리, 그 내가

“아프지? 그러니까 엄마두 아프니까, 가지 모두 아프니까 우리 저거 어떡허니 이거 약이야. 먹고 죽는 약인데 너캉 나캉 이거 먹구 죽자”

그러니까

“얘기는 어떡허구?”

그러니까

“얘기는 너캉 나캉 죽으론 그냥 죽어 여그서.”

“그 불쌍해.”

그래.

“같이 못 죽어 약이 죽어서. 우리 둘이만 먹구 죽자”

그러니까

“엄마 나 아프다구 안허구 잘 걸어가게, 우리 얘기 죽이지 말구 그냥 우리 같이 살자”

그러드라구 그래서

“그러면 아프다 그러지 말구 걷자. 여기 무섭잖냐, 벌판이 돼서. 저 말 타는 사람들도 밖이 없구 우리 둘이 밖에 없는데 너 울지 않구 잘 걸어 갈래?”

그러니까 그런데.

▷ 두 아이를 전사하며 강을 건너던 중 딸이 떨어져 머리를 다치다

그래서 손을 붙잡구 가는데 어디쯤 가니까는 해는 지구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서 저 집 뒤에, 담 뒤에다가 갖다들 인제 뭐 깎구 자드라구. 그 요케 보니까 자리가 한군데 이렇게 자두 돼. 그래서

“아유 얘기엄마 가지 못하갓네. 여기서 자”

그래 요렇게 보니깐 거기 살든 할무니야. 그래서 야 믿갓다 싶어서

“할무니 나 그름 옆에서 자까요”

그래갓군 얘기 둘러싼, 이렇게 내가 아이가 폭탄을 떨어지든 똥을 싸. 애새끼가 겁이 나서. 그래서 이렇게 뵈 여기다 반허갓구 이렇게 돌르는 걸 돌렸갓거등. 근데 그놈을 까니까 널잖아요. 그래서 둘 아이들 재워놓군 모기가 많아서 부채질을 허구 있었더니.

내가 경찰관들 쪽에서 혼병 동생이니깐 이제 거기서들 알아주는데 즈이들만 들와놓구 내가 못들왔으니까 거기 할아버지가 안되갓다, 냉중이라두 와서 물어보마는, 그 오빠가 와서 물어보든 어떡허나구. 우리 다 죄인이 될 건데. 그래 그 사람이 살려줬는데 그래갓구.

그 집이 열다섯살 먹은 남자애더러

“나가 우리 오든 길로 도루 찾아가봐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냥 나를 찾아서 그 독을, 거기 대구는 가운데루 냇가가 내리가는 그 독이 있어. 그 독으로 쪽 올라오니까는 그 여쁜 집이 있는데. 그 냇가를 건너갓구 오니까는, 한길로만 와보니까 날 찾아오는 아이드라구. 그래서

“나 여겼는데”

그랬드니만. 우리 아이 이름을 부르니깐, 이 이름을 자꾸 불르면 오니까는 여겼다구 그랬드니 할아버지가 모시고 오랜다구, 가자구 그래면서

“이케 잠들은 아이들을 어떡해 데리구 가냐?”

니깐 하난 제가 없는데, 그래 팔래미, 우리 팔래미는 업구 나는 얘기 업구 그루그선 그 대구 강을 건느는데 다리가 읍잖아 다. 그냥 물루다 건느는데 미끼러워서 남자애가 그냥 넘어지누만. 아유 애 업은 체. 그래갓군 그 팔래미가 공중 떨어갓구 대가리가 여기가 깨졌어.

▷ 피난처의 음식 인심이 참 무서웠다.

그래갓구 자매실에 들와서서 그 이튿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을 안취. 그 나가면서 나 쌀을 닷 마지, 닷 되나 되는 거 이만큼 사다 뵈든 건데. 그 가진 사람이, 누가 가졌는지 여든데서 가져서도 몰리지만서두. 조반을 해 먹을까라본 쌀 가진 사람이 조금 줘야지, 다는 안 주드래도 안취. 참 인심이 그렇게 무섭드라.

그리구 그 정열이 엄마라구 그이두 내가 글루, 자매실루 끌구 왔는데. 시장에 돌아다니다가 그 뭐 사먹으러 나가서 그냥 길바닥에서 부침 부치는 거 뭐, 튀김하는 거 그런 거 앉아갓구 사 먹잖아.

▷ 아기 데리고 울고 있는 아낙을 거두어 함께 방에 들다

그르다가 어디 가서 힘드니까 애기 내려놓구 이릉계 나무 쉼터구 그늘에 갔더니 요로구 애기 데리구 앉어서 우는 여자가 있어. 그래서 냉중
에 내가

“애기엄마 왜 울어?”

그르니까. 똑같은 젊은 것들이지. 인제 나이 스물셋살백이 안 먹으니까. 인제 그이는 나보담 두 살 더 먹었드라구. 그래갖구 그니까

“오늘 저녁 잘 곳이 읍어서 울어요. 한 데서 자든 무섭구”

그렇지 여자가 한 데서 자든 뭐 어떤 놈이 올 줄 알아. 막 쏘땡기는 게 사람인데 그때. 그타구 극장에 가든 흠악한 사람들이 그냥 뺏구 그
래서. 어떡해 할 수가 없어서 운데. 그르길래

“그르든 있다가 내가 데리구 가게, 나 쫓아오라”구 그랬드니.

“이러이러한 데서 자는데 나무 경찰 가족이니까 의심사지 말구 쫓아오라”구. 그랬드니. 데리구 가서

“으, 경찰가족이래요. 그런데 우리 쪼끔씩 줄이구선”

이 사람 하나, 이제 일곱 가족이 한 자매실에 들었는데 여섯가족이 들었는데 그 사람가정 일곱 가족으루 해서. 이 마루방이니까 판자쪽 요
고 고거 서서들 가서 세었거덩. 그르니까 내가 한 앞에 셋씩씩이니까 세 식구니까 아홉쪽이잖아. 아홉쪽이 우리 세 식구가 다 안자도 되. 그래
서 내가 두쪽 내놓고 옆에서 한쪽 내놓고 고로케 고로케해서 두 사람 자게끔 해줬어.

그랬드니 그 학교에서 즈이 서방 왔다고 그냥 가빠렸잖아.

[조사자: 나중에 안 찾아보셨어요?] 내가 인제겨정도 보고싶긴 해. 그래도 그집이 딸래미 정념이래는 거만 알고 안양 경찰서 있다는 거만 알
고 그 외는. 최순경인데 최순경, 최진데. 다른 건 몰라서 못찾았어.

(중략)

▷ 제보자 생애와 관련한 대담

조사자 : 할아버지는 그때 노름하시고 딸 여자랑 놀러 다니고 이러느라 집을 하나도 돌보지 않으면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제보자 : 친정. 그냥 친정에서 형제들이 그냥 죽지 않게 줬지. 그래서 살믄선. 냉중에는 어둡하오. 애들 클 때는 그때는 내가 이것도 해보구
저것도 해보구 그런데 어디다 취직을 했어마는 그래두 덜 심들었을 텐데. 직장에서 한 달을 뭘루다 먹구서나 해. 당장당장 하루하
루 벌어야 먹어야 되는데. 그래두 아이들허구 쪼끔 같이 있었다구.

조사자 : 장사하셨어요 그래서?

제보자 : 그렇. 그냥 이 친구 저 친구 돌아댕기면서 이것두 해보구 저것두 해보구 그냥. 장사한다구 댕겼더니 날더라 길거리루 이구 돌아댕
기므 그짓 한다구 할아버지가. 쟁피하게 그런 짓 한다구. 크게 장사 좀 못해보나구. 뭘루다 크게 장살 해. 그래갖구는 인자엄마라구
그러는 여자를 새겨갖구 그 여자허구 돌이서 진짜 깡에가 가갖구서 인자 물건을 많이 사서 구루마에다가 인제 친구는 돌이 밀구선
동네루 댕기니까. 그때는 또 얼마나 돈 버는 줄 알구 만날 거기 와서 돈 달래는 거야. 그래 돈이 없대므는 그 상회서 쫓 달래. 그
렇게 정신이.

조사자 : 리어카 장사 하신 건 언제 하셨어요?

제보자 : 그르니까 스물아홉 살부텀 했어요. 스물아홉 살부텀. 스물아홉 살부텀 만날 이 장사 저 장사, 이 장사 저 장사 허구. 할아버이는
은어 먹기 저 민망허니깐 나가서 어디가 갔는지 사 년두 소식 없구 오 년두 소식없구 헐 때. 아이들만 데리구서나 사는데 그르게
리구 먹구 사는 게 편했거덩. 그르니까 우리 그 딸래미가 거스그닐 못했어. 학교를 정식으로 다니질 못했어. 인제 저 인천에 거그
가 어디냐. 저 허여면 나가는 데 어디메. 청강 무슨 학교라구 있어 중학교. 그런데 그것두 인제 인가 없는 학교. 그거 다니구. 또
밤에만 공부허구 낮에는 또 그냥 동생들 그냥 거스그니 허느라구. 아주

조사자 : 야학같은 거 다닌 거예요?

제보자 : 어, 왜 네시나 다섯시 되든 가는 거. 그르게 해서 그거 나와갖구서나 또 강의록으루다 강으록. 그걸루 공부하고. 고등은. 그래갖구
가서, 인제 학교에 가서 육개월. 삼학년 왜 일학긴 말구 이학기에 들어가갖구 졸업장만 타구. 그르해갖구서나 공부를 했다구. 그래
갖구고 딸래미가 그냥 많이 도왔지 나를.

(이하 생략)

[논평 및 보충설명]

※ 제보자 구연의 성격과 가치에 대한 조사자의 논평을 간단히 정리하고, 구연 내용과 관련되는 보충설명을 제시한다. 예컨대 ‘잠실 피난’과
관련하여 어떤 곳이 피난용 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지를 설명하며, 한국전쟁 당시 경찰이나 군인가족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한다. 제보자가 구연한 내용이 얼마나 역사적 사실이나 당시 삶의 실상과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자의 객관적 설명 또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한편, 독자들이 이야기 내용을 좀더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 예컨대 제보자의 남편이 밖에서 아이를 낳아와서 제보자에게 말
긴 사연 등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이야기 문맥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항-남편이 자식 낳아와서 말긴 일 같은—은 이야기 원문에 각주의 형태
로 설명을 제시하는 것도 유익한 방법이다.

한국 현대사연구에서 구술조사와 정리 방법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부 겸임교수

1. 구술자료의 특징

구술사(口述史, oral history)는 문헌의 확인 또는 보완을 위한 ‘내적 역사’이며 ‘끊어진 고리’를 찾는 분야이다.

구술은 단순히 연구자의 질문에 따라 수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구술자가 자기해석해 내는 작업이다. 구술자는 구술의 주체이면서 해석자이기도 하다. 구술사는 연구자와 구술자가 함께 만드는 역사인 셈이다. 구술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심층면접(면담)이 사용된다. 필요에 따라 설문지나 특정 주제에 대한 다중면접도 사용된다.

구술사나 구술사 방법으로서 심층면담은 지금까지 문화인류학에서 주로 활용됐다. 구술사 방법은 “개인적이고 직접적이며 꽤 가까운 과거의 기억들을 수집하는 방법”에 해당하며 문자를 모르거나 법률 밖에서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권력관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이나 노인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으로 사용돼 왔다. 특히 문화인류학에서는 주관성을 구술사의 특성이라고 보며 동일한 사건을 두고 구술자들의 기억이 문헌과 다르다고 폐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다른 기억을 갖게 되는지 분석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구술자료는 기억의 부정확성, 주관성이 개입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역사학에서는 구술자료를 불신해 왔다. 그러나 구술의 잘못과 부정확성을 바로잡는 것은 역사가의 몫이다. 구술사가 기록사의 대체물이라기보다는 보완물로 이해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증언 자료와 문자 자료 사이에 차이점이 생길 때는 흔히 문자 자료를 신뢰하지만, 반드시 구술자료를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구술사는 글로 쓰여진 기록에 새로운 관점을 부여해서 그것들이 거짓임을 증명하거나, 최소한 그것들이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제임스 홉스, 1995).

오늘날과 같이 여러 가지 문명 기기가 발전한 현대시기도 구술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문명이 덜 발전된 시대보다 현대는 오히려 정치가이건 평범한 시민이건 간에 사적 종류의 기록을 덜 남기는 경향이 있다. 전화 등의 통신의 발달은 편지나 일기 등의 필요성을 도태시킨다.

둘째, 어느 사회에서나 불법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는 좀처럼 기록되지 않으며, 은밀하고 법률 밖에서 행해졌던 정치적 억압은 기록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문헌적 사료를 위주로 하는 역사 기술이 엘리트 중심의 것이라면, 구술을 통한 역사 기술은 민초들의 역사적 삶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려는 시도다. 그만큼 민초들의 이야기와 저항은 문헌으로 남기 힘들며,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윤색, 왜곡돼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구술자료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연구자의 성실성을 평가하는 척도의 하나로 거론되는 단계를 넘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헌자료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고 케를 이어준다는 점에서 중요성도 인지된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근현대사 연구자들은 구술자료를 문헌자료의 보조적인 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기억이 갖는 정확성을 비롯해 구술자료가 갖는 한계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간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가, 기억이 선택적이거나 주관적이지 않은가, 구술자가 진실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점이다. 자료에 대한 의구심이나 자료비판은 비단 구술자료에 국한하지 않는다. 문헌자료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술자료 수집에 대해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을 비껴갈 수는 없다.

구술자료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정한 오류와 한계를 거치면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이를 어떻게 활

용하는가 하는 점은 수집작업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구술자료는 구술자 중심으로 생산되지만 수집된 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바로 연구자의 몫이다.

2. 구술자료의 활용

역사학에서 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특히 일제강점과 분단, 전쟁을 거치면서 자료의 발굴과 정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근현대사에서 자료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에 인류학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구술자료가 문헌자료와 함께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 일익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역사 창조의 주역인 인간의 삶을 복원하는 데 구술자료가 갖는 생명력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연구자들이 구술자료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역사연구의 지평이 확대된 점과 관련이 있다. 제도사 연구에서 벗어나 사회사와 민중사로 확대되면서 구술자료는 문서자료의 한계를 채워줄 대안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술자료가 대두된 이유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

첫째, 문서자료의 부족 문제에서 비롯된다. 일제시대 자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변측 자료는 한국사를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에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그나마 관변측 자료도 풍부한 것은 아니었다. 패전에 임박해 일본 당국이 많은 자료를 소각했음은 이미 알려져 있다. 또한 전쟁이 패색이 짙어지던 1944년부터는 해상이 봉쇄되어 관변측 자료마저 식민지 조선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잔존하던 문서자료의 많은 부분은 미군정기와 6.25전쟁기에 다시 노획문서라는 이름으로 미국으로 옮겨졌다.

두 번째 이유는 구술자료의 특성에 기인한다. 문헌자료와 달리 구술자료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료원이 소멸되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술자료 수집은 시급성을 요한다. 그러므로 구술자료 수집은 시급성을 절감한 연구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공공연구기관이 구술자료 수집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활성화의 계기를 만들기도 했다(정혜경,1999).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구술자료가 역사 연구의 한 수단이 아니라 구술사라는 독자 영역을 갖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김기석,1988). ‘구술이 역사유물이나 사적(史蹟)과 마찬가지로의 1차 자료’라는 전제 아래 구술사의 독자성을 입증하고자 한 것이다.

구술자료는 그 자체가 갖는 한계에 대한 인식을 간과하지 않는다면, 한국 근현대사에서 활용도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구술자료의 유형

구술자료는 크게 구전(口傳, oral tradition), 증언(oral testimony), 구술<생애>사(oral <life>history) 등 세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구전은 일상생활이나 특정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는 것에 비해 증언과 생애사는 심층면접을 통해 얻어진다. 증언과 생애사는 피면접자(구술자, 증언자)가 면접자(연구자, 청취자) 앞에서 자신의 과거와 경험을 기억을 통해, 단순히 피면접자의 기억을 불러일으키거나 과거 경험의 특정한 측면을 끄집어내려는 면접자의 질문을 통해, 현재로 불러와서 면접자에게 이야기한 말을 문자(텍스트)로 만든 것이다. 구술자료는 상호 관련된 네가지 특성을 갖는다. 즉 구술성 혹은 서사성, 기억과 시간, 주관성, 공동작업이라는 특성이다. 구술자료는 말로 서술한 것이며, 기억에 의존하여 과거를 현재로 불러온 것이며, 구술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보여주며, 구술자와 연구자가 공동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해방 이후 현재까지 출간된 단행본 가운데 회고록이나 증언집류 가운데 다수는

구술자료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구술자료는 아니다. ‘회고’나 ‘수기’라는 제목의 자료는 구술자가 화자가 기억을 더듬거나 과거의 시대상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구술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공동작업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일간지와 각종 월간·주간잡지에 실린 인터뷰가 기자(면접자)와 구술자(피면접자)의 공동작업이라는 면에서 구술자료에 근접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구술자료의 활용 문제는 문헌자료와 달리 다루어질 수는 없다. 문헌자료의 경우에도 직접 인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연구자가 소화한 상태에서 연구물에 자리하게 된다. 자료의 분석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점이 연구자의 역량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술자료는 개인 구술자료와 집단 구술자료로 나눌 수도 있다. 개인 구술자료는 대체로 개인생애사 형태로 나오고 있고, 집단 구술자료는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탈북자 심층면접을 통해 수행한 일련의 ‘북한 도시’ 관련 연구가 대표적이다. KBS가 광복 60주년 특집으로 방송한 ‘8.15의 기억’ 같은 프로그램은 ‘집단 기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에서 선호하는 방식이다.

4. 구술자료의 정리

역사학계에서는 1980년대에 들어와 역사 체험자의 구술을 정리해 역사를 재구성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구술사 성과는 1990년대 들어와 나오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구술자료가 문헌자료와 동등한 자료로서가 아니라 문헌의 보완수단 정도로만 인식되었다.

그동안 현대사학계가 작업한 구술자료는 주로 일제의 사회운동이나 해방공간의 정치활동, 주민생활, 6.25전쟁기 활동, 독재정권시기 정치와 사회운동 등에 집중돼 있다.

중앙일보의 ‘남기고 싶은 이야기’, ‘비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등 언론의 근현대사관련 기획연재물들은 대부분 상당히 오랜 기간의 취재(심층면접)를 통해 정리된 훌륭한 구술자료다. 언론계 외에 역사학계에서 이뤄진 구술자료로는 1987년 창간된 『역사비평』에 실린 ‘현대사증언’ 과 ‘나의 학문 나의 생애’가 주목된다. ‘현대사증언’은 현대사연구자가 주로 일제시기와 해방이후 사회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을 심층면접을 통해 정리한 증언들이다. ‘나의 학문 나의 생애’는 체험당사자가 직접 기록한 회고나 수기가 아닌 연구자의 심층면접을 통해 정리된 ‘생애사’의 성격을 띠고 있다.

증언집으로는 출간된 구술자료로는 정리된 형식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정리자의 해설과 구술자의 증언이 적절하게 결합된 형태다. 『항일 혁명가의 회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책은 이정식이 1966년부터 1967년간, 1969년부터 1970년간에 걸쳐 구술작업을 한 결과물 가운데 9권의 면담노트를 모태로 만들어진 책이다. 이 책에는 구술내용에 대한 편집자의 해설이 30%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전문적 지식을 갖지 않은’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결에서 본 김정일』, 『그들의 새마을운동』 등도 정리자의 시각이 많이 포함돼 있지만 같은 범주로 넣을 수 있다.

둘째, 구술자의 증언을 완전한 이야기체로 가공한 증언록 형태다. 『조국』, 『끝나지 않은 여정』, 『압록강변의 겨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탄생』,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등이 대표적이다. 『끝나지 않은 여정』은 남로당 청주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이종을 비롯해 남북대립상황에서 ‘장기수’라는 이름으로 오랜 동안 감옥생활을 한 7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엮은 증언록이다. 별도의 편집자 주가 달려 있지 않아서 객관적 사실과 괴리되는 부분이나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구술자의 이야기 자체를 중시한 것이 특징이다.

셋째, 구술자의 증언을 녹취 내용 그대로 자료화해 구술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한 형태다. 뿌리깊은나

무에서 1990년대 초 출간한 '민중자서전'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역사학계로 보면 『지운 김철수』,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등이 대표적 성과이다.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은 정문연 한민족문화연구소가 1999년부터 30여명을 선정해 구술. 채록한 결과물 가운데 8명의 삶을 엮은 책이다.

5. 통일인문학연구단의 구술작업과 정리 방향

첫째, 구술작업의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단순 개인생애사인가? 역사자료의 생성인가? 개인생애사라고 하더라도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 구술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진다. 또한 학문분야에 따라 초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문학은 구술자의 구술 자체가 목표일 수 있고, 역사는 구술자의 '전형성'과 대표성, 희귀성에 주목한다. 특히 특정 분야나 특정 구술층에 따라서는 집단 구술과 교차 확인, 또는 '경향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구술자료서의 가치가 반감된다.

둘째, 구술자료의 수요자가 누구인지 확정해야 한다. 구술자료의 정리는 구술의 목표와 결과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단순히 말하면 구술을 원형 그대로 전달할 경우 수요자는 연구자이고, 1차-2차 가공형태의 결과물은 대중적 수요를 지향한다. 전자의 경우 희귀성, 독자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떨어지고, 주목받기 어렵다.

셋째, 문학과 철학, 역사학분야에서 지향하는 구술자료의 생성과 정리방향이 다르다는 점에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고민되어야 한다. 특히 '통일'인문학연구단만의 독자적 작업이 무엇인지도 좀더 사고해야 한다.

<참고문헌>

1. 방법론

- 윤택림, 1994 「기억에서 역사로:구술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들에 대한 고찰」 『한국문화인류학』 25집
- 윤희숙, 1994 「생애사 연구의 발달과 방법론적 쟁점들」 『배중무총장퇴임기념 사학논총』
- 제임스 홉스, 유병용 옮김, 1995 『증언사 입문』 한울
- 윌터 J.옹,이기우임명진 옮김, 1995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 유철인, 1996 「생애이야기의 주제와 서술전략」 『한국문화인류학』 29집 2호
- 김기석, 1998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제12회 현대사연구소 집담회 발표문 (1998. 7. 22)
- 이기숙, 1998 「가족구술사 연구법에 관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3권2호, 한국가족관계학회
- 김기석, 1998 「구술사 :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제12회 집담회(1998년 7월 22일) 발표문
- 윤택림, 1999 「구술자료의 해석과 텍스트화」 『한국문화연구의 방법론 모색: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샵 발표논문집
- 김성례, 1999 「구술사와 여성주의 방법론」 『한국문화연구의 방법론 모색 : 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샵 발표논문집
- 박현수 외, 1999 『한국문화연구의 방법론 모색 :구술사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회 제6차 워크샵 발표문
- 김귀옥, 1999 「지역 조사와 구술사 방법론:경험과 성찰, 새로운 출발」 사회발전연구소 방법론 워크샵 발표논문 (1999.12.7)
- 정혜경, 1999 「한국 근현대사 구술자료의 간행 현황과 자료가치 - 《지운 김철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33호
- 정혜경, 2001 「한국근현대사와 구술자료」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증언채록의 방법론과 제주43사건 진상조사에서 증언자료의 활동」 특강(2001.4.12)
- 유철인, 2001 「구술된 기억으로서의 증언 채록과 해석」 『근현대 사료의 이해와 수집·활용 방안-제20회 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회의 발표요지』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아르케

2. 주요 구술자료

- 이정식 면담, 김학준 편집·해설, 1988 『항일혁명의 회상』 민음사
- 김진계, 1990 『조국·한 북조선인민의 수기』 현장문학사
- 김철범 엮음, 1990 『진실과 증언』 을유문화사
- 신준영, 『이인모』 월간 말
- 이태호·신경완, 1991 『압록강변의 겨울』 다섯수레
- 정영진, 『폭풍의 10월』 한길사
- 유영구, 1994 『남북을 오고간 사람들』 글
-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증언반, 1996 『끝나지 않은 여정-한국현대사증언록1』 대동
- 이정주, 1998 「제주 '호미'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여성학과 석사학위 논문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1999 『지운 김철수』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99 『격동기 지식인의 세가지 삶의 모습』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귀옥 1999 「정착촌 월남인의 생활경험과 정체성-속초 '아바이마을'과 김제 '용지농원'을 중심으로-」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진양교 외, 2000 『주민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현대사』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 정창현, 2000 『결에서 본 김정일』 김영사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주민 생애사를 통해 본 20세기 서울 현대사-서울 주민 네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 서울학연구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내가 겪은 해방과 분단』 선인
- 김석형 구술/이향규 녹취·정리, 『나는 조선노동당원이오!』 선인
- 수원시, 2001 『수원 근현대사 증언 자료집1』 수원시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2006 『한국민중구술열전』 (전 15권) 눈빛
-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단, 2007 『한국민중구술열전』 (전 13권) 눈빛
- 최완규, 2006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한울
- 최완규, 2007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2000년대 청진,신의주,혜산』 한울
- 이우영, 2008 『북한 도시주민의 사적 영역 연구』 한울
- 윤정란, 박정석 외, 2009 『전쟁과 기억-마을 공동체의 생애사』 한울
- 김영미, 2009 『그들의 새마을운동』 푸른역사
- 유영구, 정창현, 20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탄생』 선인
- 유영구, 정창현, 2010 『김일성과 박헌영 그리고 여운형』
- 김문현, 1988 「한국현대사의 증언 : 남로당 지방당 조직의 활동상을 밝힌다」 『역사비평』 겨울호
- 한상구, 1989 「한국현대사의 증언 : 남로당 지방당 조직 어떻게 와해되었나 - '10월 인민항쟁', 3·22, 2·7, 5·10에서 투쟁한 남로당 수원군당 부위원장 김시중의 증언」 『역사비평』 봄호
- 유한중, 김광식, 1989 「한국현대사의 증언 : 혁신계 변혁·통일운동의 맥 - 해방직후 근로인민당에서 4·19시기 사회당, 박정권하에서의 인혁당, 남민전 사건까지」 『역사비평』 여름호
- 한상구, 1990 「한국현대사의 증언 : 일제시기·해방직후 경남지역 사회주의운동의 맥 - 3·1운동 참가부터 경남 여맹위원장,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지낸 권은해 일대기」 『역사비평』 봄호
- 이일재, 한상구, 1990 「한국현대사의 증언 : 해방직후 대구지방의 조공·전평활동과 「야산대」」 『역사비평』 여름호
- 정태영, 오유석, 1990 「한국현대사의 증언 : 조봉암 사형, 미국은 왜 침묵을 지켰나」 『역사비평』 겨울호
- 윤석범, 1991 「나의학문 나의인생 : 최호진 -일제 말 전시하에서의 학문편력과 해방 후 경제학과 창설」 『역사비평』 여름호
- 김세원, 1991 「한국현대사의 증언 : 4월혁명 이후 전위조직과 통일운동 - 사회당·인혁당·남민전」 『역사비평』 겨울호
- 오미일, 신영갑, 1992 「한국현대사의 증언 : 신영갑 - 적색교원노조사건과 부산지역 조공·사회당에서의 활동」 『역사비평』

봄호

- 이이화, 1992 「나의 학문 나의 인생 : 임창순 - 4.25교수데모에 앞장선 한학금석문의 대가」 『역사비평』 가을호
- 서중석, 1992 「나의 학문 나의 인생 : 송건호 - 형극으로 지켜온 언론자유와 현대사 개척」 『역사비평』 겨울호
- 이승희, 1994 「나의 학문 나의 인생 : 이효재 - 한국 여성학·여성운동의 선구」 『역사비평』 봄호
- 김동춘, 1995 「나의 학문 나의 인생 : 리영희 - 냉전이데올로기의 우상에 맞선 이성의 필봉」 『역사비평』 여름호
- 윤해동, 1997 「한국현대사의 증언 : 박헌영의 아들 원경 스님 혁명과 박헌영과 나」 『역사비평』 여름호
- 박진도, 1997 「나의 학문 나의 인생 주종환 - '한국적 경제학'의 주창자」 『역사비평』 여름호
- 한상구, 1998 「나의 학문 나의 인생 : 조동걸 : 한국 민족주의 탐구의 새 지평」 『역사비평』 여름호
- 류춘도, 윤해동, 2000 「인민군 여자군의관으로 겪은 한국전쟁」 『역사비평』 여름호
- 진양명숙, 2007 여성노동운동에 나타난 계급과 젠더 : 1970-80년대 전북지역 여성노동자의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7권 제2호